

담양군 ‘현장 중심’ 생활 밀착형 군정 펼친다

정철원 군수, 취임 후 첫 읍면장 회의…군정 방향 등 실질적 방안 모색
군민과의 대화·대통령 선거 대응·여름철 재난 대비 등 주요 현안 논의

담양군이 읍·면장 회의를 열어 현장 중심 군정 강화에 나섰다.
담양군은 최근 제45대 정철원 담양군수 취임 이후 첫 읍면장 회의를 열고, 군정의 주요 방향과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 군수의 ‘군민과 현장을 중심에 둔 행정’ 기조를 읍면과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군정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제21대 대통령선거 대응 ▲하절기 재난 대비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공직자강 확립 및 민원 응대

향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 군수는 6월부터 325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운영계획 보고를 듣고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직접 반영할 소중한 기회인 만큼, 모두 함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준수와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에 대한 협조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대응

체계 마련에도 집중했다.
풍수해·폭염 등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및 농업기반시설(저수지·수문 등) 사전점검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점검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등 현장 중심의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이행을 독려했다.
이 외에도고향사랑기부제 제도 변경 사항과 군정 전반에 걸친 현안 사업들도 함께 공유했으며, 행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읍면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군민 삶에 영향을 주는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정의 핵심”이라며 “읍면장들께서 지역 최일선에서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정철원(가운데) 담양군수가 지난 26일 취임 이래 처음으로 가진 읍면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진군, 유니세프 인증 기반 ‘아동친화도시’ 조성 속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6대 영역 42개 세부사업 추진

강진군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니세프 인증을 바탕으로 한 2025년도 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당 계획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군은 ‘아동과 함께 행복을 만드는 도시, 강진’을 비전으로 삼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영역 총 42개 세부사업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아동 관련 예산으로 총 236억 원을 편성했다.
6대 추진 영역은 ▲놀이·문화 ▲참여·존중 ▲안전·보호 ▲보건·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로 구성됐다.
핵심 사업으로는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강진군 제공>

‘맘편한센터’ ▲2000여명이 참여한 ‘청자꿀 어린이 한마당’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다산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등이다.
특히, 아동의 심리·신체 건강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성전면에 건립되는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신전면에 조성되는 다산학생수련원,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탐방 지원, 스노젤렌 심리안정실 설치 등이 대표 사례다.
군은 형식적 참여를 넘어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

책에 반영되는 구조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의견 플랫폼인 ‘우리의 의견을 말해요’ 채널 개설, ‘마음소리함’ 설치, SNS의 견 수렴을 통한 참여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은숙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이번 시행계획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아동이 주체가 되는 정책 구현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아열대작물 메카’ 장성에 ‘아열대 청년마을’ 문 열었다

농촌체험·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들어서는 장성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 ‘아열대 청년마을’이 문을 열었다.
장성에는 오는 2026년 경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지면적 22만 7783㎡, 바닥면적 합계 4358㎡ 규모로 국비 37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아열대 청년마을은 아열대작물 재배에 적합한 삼계면의 지역적 특징점을 활용해 ▲아열대작물 가공 및 상품 개발 ▲2박 3일 체류형 투어 ▲한달 살기 프로젝트 ▲아열대 페스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청년 주도형 마을이다.
장성지역 농업회사법인 ㈜엘로우창농이 전담형 청년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 첫발을 내딛게 됐다.
앞으로 2년간 다양한 농촌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농가 협업을 통한 먹거리 개발과 체험공간·농업기반 공동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



지난 9일 장성 삼계면 상도리 농장에서 ‘아열대 청년마을’ 개소식이 열렸다. <장성군 제공>

바지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아열대 청년마을이 농업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

며 “군도 청년들의 꿈이 성장하는 ‘아열대 농업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초·중생 영어 원어민 화상교육 지원

다음달 6일까지 수강생 선착순 모집
나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1기’ 수강생 34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원어민과 실시간 ‘1대3’ 그룹 화상영어 수업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수강 신청은 나주시 화상영어 홈페이지(www.najuenglish.com)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학생 330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15명을 모집한다.
기수별 8주 과정으로 교육 시간은 주 2회(화·목) 회당 45분 또는 주 3회(월·수·금) 회당 30분씩 1주일에 90분이다. 수업 시간은 오후 5~10시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인당 수강료는 6만4000원으로 일반학생은 2만원만 부담하면 차액 4만8000원을 시가 보조해준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은 수강료 전액을 지원한다.
각 가정에선 원활한 화상영어 수업 진행을 위해 화상 카메라와 헤드셋을 비롯한 노트북을 준비해야 하고 학습 개시 전 학생 수준별 레벨테스트 진행 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원어민과의 실시간 영어 회화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교육도시 나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30억 확보
6600㎡ 규모 스마트팜 온실 신축

함평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영농 스마트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은 함평읍 수호리 일원에 6600㎡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하고, 청년농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이번 사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대형 스마트단지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은 향후 지속적으로 스마트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청년에게는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농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나주향교 스토리 담은 마당창극 ‘금성별곡’ 다음달 6일 나주향교 명륜당 앞마당서 공연

유산청 국가유산 활용사업 제작

나주시가 다음달 6일 오후 3시 나주향교 명륜당 앞마당에서 국가유산청의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제작한 나주향교 오지네 프로그램인 마당창극 ‘금성별곡’ 공연을 개최한다.
금성별곡은 전통문화의 숨결이 살아 있는 나주향교에서 나주향교만의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향교의 전통적 가치와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금성별곡은 나주향교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조선 시대 유학 문화, 지역 공동체 이야기, 그리고 나주의 정신적 뿌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연 콘텐츠로 마당창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관객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24일간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국가유산주간’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 확산은 물론 나주향교가 현대 사회에 맞는 문화 발전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공연과 연계해 나주향교의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놀이 소대회 등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향후 나주향교를 도심과 공존하는 ‘나주읍성 문화권’ 대표 관광테마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금성별곡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나주향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 나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향교 오지네는 12시부터 전통놀이 소대회 예선·본선과 전통놀이 체험, 오후 3시부터 마당창극 ‘금성별곡’이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나주향교 굿은 소나무학교’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전화 061-334-2338로 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운영

다음달 2일까지 54명 모집

장성군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54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현안 사업과 연계한 공공 일자리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준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6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미취업 주민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신청서

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장성근린공원 관리·조성, 추모공원 환경정비, 도서관리 지원, 공공체육시설 관광지 조성, 활동강변 조화류단지 관리 등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며 1일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 조건에 임금은 시급 1만30원이다. 간식비와 주휴·연차수당도 지급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30일 두 번째 청춘신작로 버스킹 공연

화순군이 30일 오후 6시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두 번째 청춘신작로 버스킹 공연을 연다.
지난주 첫 공연이 성황리에 열리며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가운데, 이번 주 역시 다채로운 무대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총 6팀의 아티스트가 출연해 금요일 밤 어울림광장을 문화로 물들인다.
▲감성적인 보컬 무대를 들려줄 ‘백광옥(개

인)’ ▲풍부한 선율의 색소폰 듀엣 ‘잉리아 색소폰 듀엣’ ▲에너지 넘치는 방승대스를 선보일 ‘이산하(개인)’ ▲대중가요로 관객과 소통하는 ‘하랑더 보이스’ ▲밴드만의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줄 ‘자유곡산’ ▲현대무용과 발레 무대를 펼칠 ‘조선대 무용팀’까지 금요일 밤 어울림광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